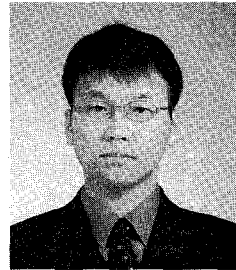


# 하반기 사육수수 감소, 내년 상반기 들어 증가세로 반전될 듯



전 상 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축산관측팀 연구원)

## 1. 축산관측팀 소개

### 1) 축산관측의 연혁

1979년 10월 이후 약 20여 년간 과거 축협 중앙회에서 실시되었던 축산관측업무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로 이관되었다. 그에 따라서 농업관측센터는 채소, 과일, 축산 등 농축산물 전반에 대한 관측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거듭 태어나게 되었다.

### 2) 축산관측의 목적

축산관측의 기본 목적은 생산자인 양축가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양축가들에게 축종별 수급동향 및 관측정보의 제공을

통해, 축산물의 수급을 안정시키고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데 기본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축산경영의 합리화, 유통기능의 원활화, 축산시책의 과학화를 이룩하고자 한다.

### 3) 축산관측의 절차

관측품목은 한육우, 젓소, 돼지, 산란계, 육계 등 5가지 축종에 대하여 실시되는 데 육계는 자본회전율이 짧기 때문에 매월 관측이 실시되고, 나머지 축종은 매 분기마다 한 번씩 실시하게 된다. 관측내용은 대상축종의 사육동향과 전망, 수급 동향과 전망, 가격동향과 전망 등이다. 조사방법은 농림부 자료 및 축산유관기관의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더불어 전국의 축종별 표본농가(1,500여 농

가)에 대한 전화조사를 실시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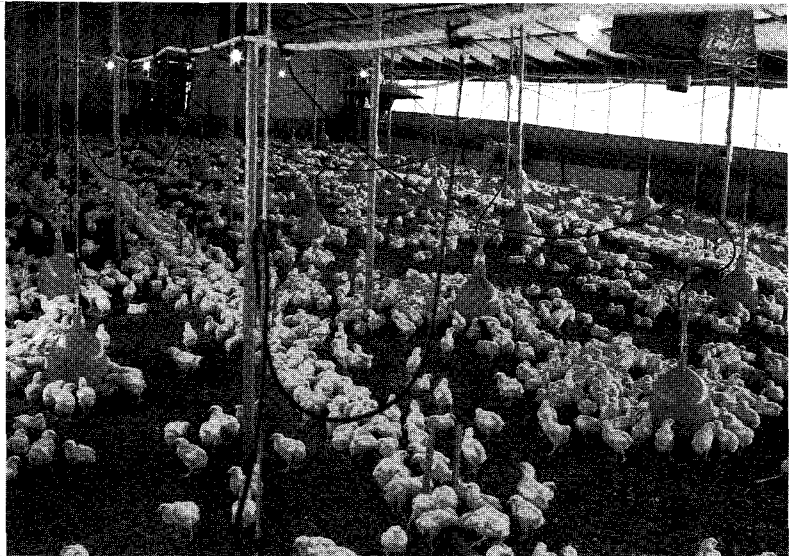
축산관측 결과는 농업전문지, 잡지, 신문, 인터넷, 라디오 등을 통해 홍보된다. 참고로 한국 농촌경제연구원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krei.re.kr> 이다.

## 2. 육계업 동향

### 1) 사육동향

육계는 1998년 IMF의 영향으로 사육수수가 감소한 적을 제외하고는 그 동안 사육수수가 꾸준하게 증가해 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런 추세는 금년에도 이어져 6월 1일 사육수수는 5,991만수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하였는데, 3개월 전보다 42%, 작년 동기보다는 16% 증가하였다. 사육호수는 금년 6월 2,859호로 3개월 전보다는 40%, 작년 동기보다는 7% 증가하였다.

육계 사육수수는 계절적인 요인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다. 복날이 끼어 있는 7,8월에 사육수수가 가장 많고 이후에 감소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농가에서는 월복으로 인한 수요증가를 예상하고서 금년 상반기 사육수수를 대폭 늘렸다. 병아리 생산 실적과 질병으로 인한 폐사율을 고려해 본 결과, 8월 1일 사육수수는 6월 1일에 비해 31% 증가한 약 6,170만수 정도로 추정된다. 농업관측센터의 표본 조사결과, 질병을 경험한 농가들은 6월에 비해 그 수가 점차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어 질병이 점차 수



그러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사육수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배합사료 생산량을 살펴보면, 금년 1~6월에 생산된 육용실용계 배합사료 생산량은 76만2천톤으로 '98년 동기간에 비해 25.4%, 작년 동기간에 비해서는 10.4% 증가하였다. 금년 1~6월에 생산된 종계사료 생산량은 13만3천톤으로 1998년 동기간에 비해 10.8%, 작년 동기간에 비해서는 2.3% 증가하였다.

### 2) 가격동향

육계사육의 특징은, 생산에서 출하까지 약 30~40일 정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다른 축종에 비해 굉장히 싸이클이 짧다. 단기적으로 시장으로의 출하시기와 출하물량에 의해 가격은 급격히 변동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질병과 무더위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이들 요인들에 의해서도 가격은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과거 3년의 산지일일거래동향을 살펴보면, 산지가격은 크게 계절에 한번

씩 등락을 거듭하고, 작제는 보통 1달에 한 번 정도의 등락주기를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금년 1~5월 사이에 산지육계가격은 작년 동기보다 20% 낮은 kg당 1,200원대를 중심으로 등락을 거듭하였다. 6월초에는 공급량이 특히 많아 산지가격은 kg당 900~1,100원으로 하락하였으나, 6월 중순부터는 이상 고온으로 수요는 늘어나는 반면 전국적인 질병의 여파로 생산량 증가는 둔화되어 가격은 급등하였다. 7월 들어 출하량은 질병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로 둔화된 반면, 경기상승으로 수요는 12% 정도 증가하여, 초복이 시작되는 7월 초를 기점으로 산지가격이 1,600~1,700원대까지 급상승하였다.

그러나 7월 하순대비 출하량이 증가하였고 질병으로 인한 피해도 점차 줄어들면서 산지가격은 다시 급격히 하락하다가, 8월 중순들어 소폭 상승세로 돌아서 8월 17일에 1,200원대로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 3. 육계업 전망

#### 1) 사육전망

육계사육수수는 사육주기가 짧기 때문에 어느 한 시기에 전체 사육수수가 얼마인가를 말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만 몇 가지 자료를 통해 전망해 보자. 사육수수는 생산된 종계병아리수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데, 금년 9~11월 사육수수에 영향을 미칠 작년 4/4분기에 생산된 종계병아리는 58만수로 1998년 동기보다는 25% 감소하였다. 그리고 금년 12월~내년 2월 사육수수에 영향을 미칠 금년

1/4분기에 생산된 종계병아리는 99만수로 작년 동기간보다 8% 증가하였다. 종계병아리 생산수수를 통해 분석해본다면, 금년 하반기 사육수수는 감소하고, 내년 상반기에 들어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전망치를 얻기 위해 종계병아리 생산실적, 최근 가격동향, 계절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 9월과 12월에는 사육수수가 약 4,500만수와 4,000만수 내외로 감소할 전망이다. 9월 사육수수는 작년 동월에 비해 6%정도 증가, 12월 사육수수는 작년 동월에 비해서는 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2) 가격전망

관측센터 표본농가 조사결과, 8월 출하물량이 7월보다 14% 적으나, 작년 동월보다는 1% 정도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8월 출하에 정물량을 순기별로 보면, 8월 중순에 출하량이 집중되고 하순부터 추석 전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하량은 8월 중순에 집중되는 반면, 말복 이후 소비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8월 중순까지는 가격이 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8월 하순부터는 출하물량은 감소하고, 9월 초 추석수요로 소비는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석 전에 가격이 일시적으로 소폭 반등할 가능성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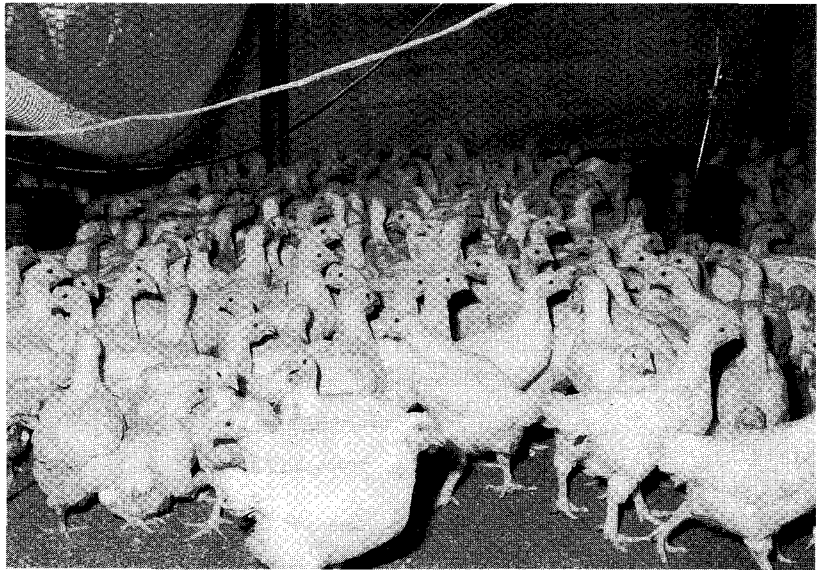
모형분석 결과 작년에 비해 하반기 사육수

표1. 예상 출하량 지수

		7.1-7.10	7.11-7.20	7.21-7.31	8.1-8.10	8.11-8.20	8.21-8.31	9.1-9.10
2000년	순기별	95	47	95	58	100	46	20

주 : 순기별 출하량지수는 8.11-8.20 출하량을 100으로 한 것임.  
자료 : 농업관측센터, 7월 24일 표본농가조사치.

수는 작년에 비해 7~8% 정도 증가하고, 하반기 수요는 경제성장률이 약 9%으로 예상됨에 따라 닭고기 전체소비증가율은 작년에 비해 7%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수급상황을 작년과 비교해 보면, 공급이 수요보다 약간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가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4. 결론

작년 하반기 이후 육계산지가격은 하락하여 올 6월까지 대체로 약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육계농가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앞서 언급하였지만, 육계는 다른 축종에 비해 사육주기가 짧기 때문에 가격의 등락이 굉장히 심하다. 그에 따라 농가의 사육의향에 투기적인 요인도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본문에서 사육전망과 가격전망에 대하여 수요증가보다는 사육수수 증가에 따른 공급증가 요인이 더 크기 때문에 가격은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일 뿐,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중간에 몇 번이고 등락할 가능성이 있다.

자주 반복되는 가격의 등락에 따른 피해는 비단 생산자뿐만이 아니라 소비자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축산관측이 5개 축종에 대하여 관측업무를 실시하고 있지만, 실은 축산관

측이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육계와 같이 단기간에 가격등락이 심한 축종이다. 단기간의 가격은 농가들의 입추시기와 출하시기의 조정을 통해 어느 정도 등락폭을 완화시킬 수 있다. 금년 7월부터 시작하여 축산관측이 약 2달 정도 지났지만, 농가들의 출하의향 시기에 대한 조사결과와 실제 시장상황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입추의향 조사에 있다. 출하는 입추시기에 따라 자동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다. 그러나 의향은 매번 시세에 따라 달라진다. 때문에 농가들의 입추의향 시기와 물량이 어느 한 시기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적정수가 적정시기에 입추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확한 관측정보를 제공해야만 한다. 이를 통해 가격의 급격한 등락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보다 정확한 축산관측을 위한 육계농가들의 진정한 격려와 관심을 당부하며 글을 맺는다. 양계